



제9 차 총회

2017 6 월 29 일 - 7 월 16 일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목적 모성의 예언적 선물

소식지 2

2017. 07.08

시선의 깊이와 선견지명

하루의 일정은 성바오로 수도회 도미니코 솔리만(Domenico Soliman)신부가 주례하는 미사로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들의 동반기도는 전세계의 빠스토렐레들과 함께 친교 안에서 매일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5일 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총회는 현실을 조명하기 위한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우리에게 조명된 내용을, 성령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경청에 집중하기를 요청했습니다.

1. 수도회 상황에 대한 보고

마르타 피노텔리 수녀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회의 여정을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인간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순례의 비유를 들어 보고했으며, 우리 역사를 인도하시고 백성과 문화들 사이에서 걸어갈 능력이 있는 하느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에서 시작되어 프란치스코 교황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교회의 여정을 강조하고 참으로 광대한 지평을 열어 주었습니다. 더 큰 식별과 판단, 창의적 능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목 스타일의 긴급성과 구체적인 친교의 교회론의 필요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마르타 수녀는 제 9차 총회를 준비하며 제안된 여정에 응답한 공동체와 수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아민타 수녀가 전문적이고 분명하게 경제 부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안에 대해 지엽적 시각을 갖기 보다 교회가 가난해 지고 또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한 인류의 의미와 희망에 대해 살피도록 요청했습니다.

7 월 6 일 목요일 첫 시간은 총회 참석자들이 총장과 경제담당의 발표를 먼저 개인 적으로 숙고한 후 자신의 식별 그룹에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전체 회의에서 나누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2. 주제들에 대한 심화

오후에는 교의신학 교수이며 그레고리안 신학대학의 학과장인 **Michelina Tenace** 수녀가 숙련되고 매력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성의 다산성’(La fecondità della donna nella Chiesa)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미첼리나 수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사랑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한 편으로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다른 편으로는 우리 앞에 있으며 우리를 변모시키는 ‘다가오는 왕국’을 바라보라고 초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산성의 이콘으로서 동정마리아를 제시했습니다. 사랑과 순명 안에서 믿음과 겸손으로 하느님의 아들에게 몸과 피를 주는 하느님의 어머니, 자신의 삶을 하느님 안에서 성취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모든 피조물의 성소를 드러내는 여성으로 소개했습니다.

7 일 아침, 참석자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 뛰는 아기’에 대한 루카복음 1 장 41 절의 복음선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교황청립 성 안셀모 대학의 교수이며 성서학자인 **Marinella Perroni** 는 마리아와 신약의 여인들에 대한 이콘을 통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 크리스찬 신앙이 시작되는데 근간이 되었던 그들의 현존을 발견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났음을 부인하지 않고 마리아를 받아들이며, 동시에 사랑하는 제자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시다는 선포를 받아들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심오한 성서신학은 마리아를 하느님의 메시아 약속을 가시적이고 들을 수 있게 한 예언적 여인으로 관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오후에는 우르바노 대학의 기초신학 교수인 **Armando Matteo** 신부가 ‘어떤 사목?’을 해야 하는가를 말한 사목현장의 시각 안에서 지역교회와 봉헌생활에 대해 숙고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목서한에서 당신의 교황직과 우선적 순위에 대해 이해하도록 열쇠를 주었습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전염된 지역이 되도록 세상 안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허용되는 나침반에 비교되는 놀라운 텍스트입니다. 아르만도 신부는 이외에도 자신의 강의 중에서 봉헌생활이 본성상 이미 경험의 한계를 가지면서도 지역 교회 에 “실제적 예언”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광대함 안에서 귀중한 시간은 흘러가고 연구와 숙고의 자리는 명확해 졌습니다. 넓은 시각으로 시대를 감싸 안고 역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미묘한 변화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총회소식 전달비서,
안젤라 나폴리 수녀

